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24(금) ~ 2025.1.30(목)

제공일시 2025.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24(금) ~ 2025.1.30(목)

제공일시 2025.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글로벌 정책

1. EU, 기업규제 대폭 간소화·투자기금 신설 추진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함
- 27일(현지시간) EU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5개년 구상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계획안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간소화하는 일명 옴니버스 규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임
- EU 여러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한 일명 '28번째 법적제도(28th legal regime)' 도입도 검토함. 투자 활성화 방안도 담김

[\(연합뉴스 2025.1.27\)](#)

2. 트럼프 IRA 손질 시동... 전기차 충전기 예산 등 제한적 중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옹호했던 대로 전기차 업계와 직결돼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마 위에 올리고 '손질'을 시작함
-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위한 인센티브 등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이 중단됐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중단 범위가 일단 좁아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옴
-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지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포했던 IRA 및 인프라투자자리법(IIJA) 지출 중 일부를 중단시켰다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전함

[\(연합뉴스 2025.1.23\)](#)

3. 中, 광물자원 탐사에 80조원 투자

- 중국이 올해까지 광물자원 탐사에 4000억위안(약 79조1200억원)을 투자함. 전략적 광물자원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과 자원 안보 강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됨
- 28일 중국 천연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동안 총 4000억위안(약79조 1200억원)을 광물 탐사에 투입함
- 이 중 90% 이상이 민간 자금으로, 지난 2023년부터 2년 연속 1000억위안(약 19조7200억원)을 돌파하며 광물 탐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더구루 2025.1.28\)](#)

국내 정책

1.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박차... 2050 감축경로와 2035 NDC 새 계획 공개

- 환경부는 2025년 주요 과제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감축경로를 마련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함
- 이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
-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실현 가능한 중기 감축목표로 설정되며,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심의 후 국제사회에 제출될 예정임
- 차기 NDC는 이전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목표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됨

[\(에너지경제 2025.1.29\)](#)

2. 중·소·상·공인 AI 활용 확산 초석... 정책자문단 출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을 위한 정책자문단이 본격 활동을 시작함
- 곧 마련될 '중·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법'의 핵심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 자문단의 주요 역할임
- 정책자문단은 △AI 기본법상 중소기업 관련 규제 및 대응방안 △정부 중점 지원과제 △해외 인공지능 우수정책 벤치마킹 △학습 데이터 확보·공유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과제도 제안할 예정임
- 또,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도입 현황과 활용 시 애로사항, 도출된 정책과제 등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등도 진행하고 보완함

[\(이데일리 2025.1.23\)](#)

3. 거래소, 밸류업 지수서 '밸류킬' 기업 퇴출 검토한다

- 한국거래소가 시장 평판이 훼손된 기업들을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 중임
- 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방법론에 정성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추진, 해당 요건에 맞지 않는 일부 종목은 퇴출한다는 방침임. '밸류업 역행 지수'라는 시장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
- 24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방법론에 정성적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기존에는 시가총액·적자 여부·주주환원·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정량화된 수치에 근거해 지수 구성 종목들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시장 반응'과 같은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하겠다는 것임

[\(한국경제 2025.1.24\)](#)

글로벌 기업

1. CATL, DHL 물류센터에 ESS·에너지 관리 플랫폼 공급

-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이 독일 우편·물류 서비스 기업인 DHL에 액체 냉각식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공급함. CATL은 지난 27일(현지시간) DHL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힘

- 회사는 DHL이 물류단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CATL과 손을 잡았다고 설명함. DHL은 CATL 제품을 활용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임

[\(전자신문 2025.1.29\)](#)

2. 'LG엔솔 공급파트너' 벌칸, 열수로 최초 배터리 호환 리튬 생산

- 호주 리튬·재생에너지 기업 벌칸 에너지 리소스(Vulcan Energy Resources)가 열수에서 최초로 배터리용 리튬을 생산함. 이번 성과는 유럽의 원자재 독립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25일 업계에 따르면, 벌칸 에너지는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회흐스트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앙 리튬 전기분해 최적화 공장(CLEOP)'에서 배터리 등급의 수산화리튬(LHM)을 생산함. 이는 원료 추출부터 최종 제품 가공까지 전 과정을 유럽 내에서 진행하는 첫 사례임

[\(더구루 2025.1.25\)](#)

3. 미쓰비시, 혼다-닛산 초대형 합병에서 이탈? "독립 유지할 듯"

- 혼다와 닛산이 지난달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고됨. 하지만 미쓰비시가 해당 합병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고 있음

- 최근 일본 경제지 요미우리신문은 미쓰비시가 결국 합병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혼다-닛산이 새롭게 설립하는 지주회사에 합류하는 대신 독립 브랜드로 남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짐

[\(글로벌이코노믹 2025.1.25\)](#)

4. TSMC, 에너지 수요 위해 LNG 사용 고려... 환경단체들 우려

-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TSMC는 '2040년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선언했지만, LNG 의존 심화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1.23\)](#)

국내 기업

1. LG엔솔 '유럽 최대 규모' 폴란드 ESS 프로젝트 최종 수주

-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가 발주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수주함.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부터 운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함
- PGE는 22일(현지시간) ESS 사업 파트너로 LG에너지솔루션을 택했다고 밝혔
- LG에너지솔루션 브로츠와프법인은 폴란드 자르노빅(Zarnowiec) 양수 발전소 인근에 263MW 출력·900MWh '유럽 최대 규모' 저장용량의 ESS 건설 사업을 맡음
- 설계부터 시공·시운전까지 완료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함

[\(더구루 2025.1.23\)](#)

2. SK온, 2조 '잭팟' 터지나... 닛산 美공장에 배터리 공급할 듯

- SK온이 일본 완성차업체 닛산 미국 공장에 20GWh 규모의 배터리를 2028년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함. 최근 배터리 셀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됨
- 전기차 판매 둔화로 적자를 내고 있는 SK온이 오랜만에 '수주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됨
-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SK온과 닛산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고, 구체적인 계약 시기를 조율하고 있음. 20GWh는 전기차 약 30만대에 탑재되는 양임

[\(한국경제 2025.1.23\)](#)

3. 현대엔지니어링, 2조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 내년 초 착공

- 현대엔지니어링이 세르비아에서 2조원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내년 초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지난 24일 현지매체는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 광업에너지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함
- 한다노비치 장관은 "이는 유럽 최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세르비아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함. 완공 시기는 2028년임

[\(KPI뉴스 2025.1.25\)](#)

4. 현대차, 인도 첸나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

- 현대자동차가 인도 첸나이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일렉트라이브닷컴이 27일(현지시각) 보도함. 이는 현대차가 인도에서 첫 현지 생산 전기차를 출시한 직후에 이뤄진 것임
- 일렉트라이브닷컴에 따르면, 첸나이 공장은 현대차그룹의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공동 운영하며 현지 첫 전기차 모델인 크레타 일렉트릭의 배터리 팩을 생산함

[\(글로벌이코노믹 2025.1.28\)](#)

EU, 중국 전기차와 '생존 전쟁'... 유럽 전역에 '보조금'

- EU가 급성장 중인 중국 전기차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EU 전역에서 통합적인 전기차(EV) 구매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임

- 23일(현지시각)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범유럽 차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러한 논의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며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되었음

-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들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조건이 크게 달라 통합적인 대응이 부족한 상태임. 일부 회원국은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시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가 12월 포드(Ford) 쉐프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 보너스나 독일산 전기차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로 구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솔츠 독일 총리는 이번 세계경제포럼에서도 EU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차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독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Volkswagen)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공장 운영 방식을 재검토 중이며, 포드는 2026년까지 독일에서 4,000명의 직원을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음. 이는 독일 정부가 2023년 말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한 이후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것임

-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피해야 하며,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음

- EU는 통합된 보조금 제도를 통해 각국 간 경쟁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자 함.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보조금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임

-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자국 및 역내 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통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이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점도 유럽 자동차 업계에 추가적인 도전 과제로 작용하고 있음

- EU의 통합 보조금 정책은 단순히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넘어 유럽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평가됨

- 전문가들은 “EU는 보조금 제도 설계와 WTO 규정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는 중국과의 전기차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임팩트온 2025.1.24\)](#)